

황보라, 교통사고 연출 공구 영상에 '뭇매'...음주운전 전력까지 소환

등록 2026.02.13 09:50:32



[서울=뉴시스] 황보라.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2026.0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배우 황보라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공동구매(공구) 홍보 영상이 교통사고 연출 논란에 휩싸였다.

13일 연예계에 따르면 황보라는 지난 11일 소셜미디어에 마카다미아 공동구매 홍보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은 야간 운전 중 사고가 난 듯한 상황을 연출하며 비명을 지르는 장면으로 시작한 뒤, 화면이 전환되자 황보라가 웃으며 '마카다미아 먹을래?'라고 말하며 제품을 내미는 방식으로 전개됐다.

해당 영상이 확산되자 "홍보 방식이 부적절하다" "교통사고를 가볍게 소비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논란이 불거진 뒤 해당 영상은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황보라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함께 거론했다. 황보라는 2007년 12월 20일 새벽 서울 강남구청 사거리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3647@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